

2028년 한국재무학회 운영 계획서

“회원의 연구 경쟁력이 곧 학회의 미래, 도약하는 한국재무학회”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28년 한국재무학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성균관대학교 송교직입니다.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40여 년간 선후배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재무·금융 연구를 선도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저는 2020-21년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ARFR, 재무연구)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회지 Scopus 등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2020년 제가 창립한 Global AI Finance Research Conference를 23년까지 학회와 공동 개최하며 외연 확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한국재무학회가 ‘아시아 지역의 재무/금융 분야 연구의 허브이자 지식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글로벌 연구 수월성 제고와 학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 신진·중견 연구자의 글로벌 학술 활동 전폭 지원

AFA, WFA, EFA 학회의 논문 발표자뿐만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한 국내 연구자를 매년 10여 명 선발하여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대만 재무학회와의 공동학회를 확대, 발전시키고,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우수 연구진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 ARFR(재무연구)의 SSCI 등재 추진

ARFR은 Scopus에 등재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SSCI 등재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무학회의 국제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한 후, 저명 해외 석학 초빙 특별호 기획, 글로벌 인용 확대 전략 등을 추진하여 학회지의 SSCI 등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3.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학·산·정 국제 포럼’ 개최

AI 전환과 디지털 금융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산업의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학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들의 글로벌(동남아 등) 진출, 금융 규제 및 정책 대안을 현지 학계·산업계와 함께 모색하는 국제 실무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4. 유관 학회 간 전략적 협력 강화

한국증권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등 유관 학회들과의 중복성 행사를 지양하고, 공동 심포지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행사 효율화를 통해 회원님들의 학회 활동 피로감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동시에, 금융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 재무금융 학계가 일관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 허브로의 확장, ARFR의 SSCI 등재, AI·디지털 금융 혁신 연구를 이끄는 새로운 도약을 통해 회원의 연구 경쟁력이 곧 학회의 위상이 되도록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8년 한국재무학회장 후보 송교직 拜上